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시편 59:1-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다윗의 외부적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인을 이 같이 환희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1, 52, 54, 56, 57, 59, 60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며 기록한 시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으로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한 사람은 이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기습했을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기지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 1. 다윗의 도피

다윗이 끌리앗을 한 칼에 물리치고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삼상 18:7)라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여 다윗에게 단장을 두 번씩이나 던지며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사울과 궁궐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가 군인들로 하여금 포위케 하고 아침에 그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그 밤에 창문을 통해 성 밖으로 도피시켰습니다.

5절과 8절에서 '모든 나라들', 13절에서 '땅 끝까지'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선민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 다윗의 첫 번째 호소(1-8절)

12절에는 4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건지소서', '보호하소서(높이 드소서)',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뜻 없이 종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위협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할 자신의 기도를 4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 ① 위협 중에 처해있기 때문이다(3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현재 다윗에게 직면한 위협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려 주소서,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협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닥쳐왔거나 혹은 절망 중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 ② 다윗은 무죄했기 때문이다(3-4절).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3절).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하나님의 품성 때문이다(5절).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시나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다(I am who I am)'이며,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마지막 언약 관계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특한 권세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 ④ 개같이 잔인한 원수 때문이다(6-8절).

개는 본래 천시 여김을 받는 동물입니다. 시인은 성안을 두루 다니면서 살상을 자행하는 개처럼 원수들이 인명살상을 자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 3. 후렴(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9절).

이 말씀은 17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는 하박국 선지자가 위기와 공포에 처했을 때 한 말과 같습니다(합 2:1). 하박국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므로 주를 바라분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듯 시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 4. 두 번째 호소

첫 번째 호소에서 다윗은 위험 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구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소에서 위험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응해 달라고 합니다.

시인의 두 번째 호소의 특징은 원수가 단번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백성들이 그들의 멸망을 보며 배울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시라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합니다(14-16절). 그리고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두 번째 후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의 외부적 환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이미 16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시인을 이 같이 환희의 자리로 이끌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찬송일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 주일 I, II, III 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가져

오늘 우리교회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주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축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잊어버렸던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우리를 위해 살 찢기고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사

랑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으며 맥추감사헌금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송을 갖는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는 2007 홍해작전 승전감사에 배로도 함께 드린다.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맥추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 성경통독새벽기도회

## 7월31일(화)까지 매일 새벽 5:30 본당에서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이는 새벽기도회가 연일 뜨거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다.

2007 홍해작전 기간 중 시작된 성경통독사경회는 성경일천독 대장정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7월31일(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성경통독사경회의 강사로 우리교회 부목사들이

서고 있으며 7월1일(주) 오늘까지 사무엘하 6장을 통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금주의 성경통독범위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 짜	7/2	7/3	7/4	7/5	7/6	7/7	7/8
성경범위	삼하7-16	삼하 17-24	왕상1-7	왕상8-15	왕상16-22	왕하1-9	왕하10-18
담당 교역자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 2007 홍해작전 4행시 심사결과

##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시상 -

지난 6월 25일(월) 마감한 2007 홍해작전 4행시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이번 홍해작전 4행시 모집에 총 88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그 중 3편을 대상으로 7편을 입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상은 오늘 찬양예배, 홍해작전 승전보고 시간에 한다.

홍해작전 4행시에 입상한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을 수상한 이들의 4행시를 함께 게재한다.

### 홍리예(초등부 4학년)

- 홍-홍해작전이란
- 해-해서는 안 될
- 작-작은 거짓말일지라도
- 전-전부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 최경미(중등부)

- 홍-홍해의 기적을
- 해-해결의 기적을
- 작-작정한 소망을
- 전-전적으로 누리게 하소서

### 최낙준 집사(14교구)

- 홍-홍색 실을 매단 라합을 구원하시고
- 해-해로를 육로로 바꾸신 주님께서
- 작-작은 기도의 불꽃들을 모으사
- 전-전 세계 복음화의 불기둥 되게 하소서

### <대상>

- 교육1국: 초등부 홍리예
- 교육2국: 중등부 최경미
- 일반: 최낙준 집사

### <입상>

- 유윤지(고등부) 이주희(고등부) 강석조(1교구)
- 김순영(3교구) 김진숙(9교구) 오가연(13교구)
- 유상득(13교구)

# 장년부 특강

13일(금) 오후7시 101호

장년부 특강이 열린다.

이번 특강은 장년부 여름수련회를 대신하여 모이는 것으로 주승중 교수(장신대)가 강사로 선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금주의 성구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24-26)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Numbers 6:24-26 [NIV])

## 목사님 궁금해요

# 맥추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시나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

그중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에 걸쳐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것이다(출23장).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여 누룩 없는 떡(무교병)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며, 유월절 후 일곱 주일이 지나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수장절은 매년 끝에 모든 오곡백과를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을 멸하고 땅을 분배받아 정착하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보리)을 거두게 되었고,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전에 드리면서 감사를 하였다. 이것이 곧 맥추절이다(출23:16a).

이종운 목사 목회서신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세 번째 편지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일간의 짧지 않은 여행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여러분의 사랑어린 기도를 힘입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흠어져 있는 서울교회 가족들을 통한 웅숭한 대접을 받고 KIMCHI 세미나 동문들을 만나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감사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들을 여기에 일일이 적고 싶지만 그분들의 사랑이 오히려 왜곡될까봐 약하기로 합니다.

다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약 2,4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를 지난주일에 예배 시 설교자로 초청해주신 KIMCHI 1회 동문인 로베르트 목사님이 그분의 KIMCHI 자랑과 자기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 동기를 들으면서 그 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란서의 엑스 인 프라방 개혁신학교의 피에르 총장과 포울 웰스 교수의 겸손과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포울 웰스 교수는 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동기동창생으로 작년 KIMCHI 세미나에 오셨을 때 40년 전 친구를 피차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

## -불란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을 간청

###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도전과

###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도 정리

## -오직 복음 확장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에야 알고 반갑게 대화를 하였었는데 그분이 자존심과 국가적 체면을 접고 불란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교회의 도움을 간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란서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400Km가 넘는 리옹에서 제가 파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불란서 교회가 한국교회의 신앙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새벽기도회로 모인 시간에 설교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나 외국에 오나 오직 복음 확장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도전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 거립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으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릴 시간이 될 터이니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서울교회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름으로 크신 하나님께 계속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목사 이종운 드립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 새가족부로 향하는 남편의 걸음걸이는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유봉현 성도(1교구)

5월6일 드디어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8주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저는 8주 동안 같이 교육을 받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예배만 간신히 드리다 보니 남편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였고 아내인 제가 이끌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간혹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어김없이 교회에 가지 않았고, 집안행사가 주일에 있으면 예배보다는 세상적인 일들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가족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받던지 교육받는 기간 동안 외워야할 성경암송구절이 있었는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그 종이해질 정도로 열심히 외웠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닫혀있던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세상에 찌들어있던 영혼이 치유함을 받으면서 서서히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저는 덩뎡하게 교육을 받은 반면, 남편은 주일예배 후 새가족부가 있는 6층으



로 올라가는 걸음걸이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받는 기간 중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예배 후 바로 가야 했는데 남편은 예식장에 늦게 가더라도 교육을 받는 열의를 보였고, 직장에서 1박2일로 지방에 가야 할 주일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취소하고 한주일도 거르지 않고 8주 교육을 마쳤습니다.

남편을 처음 전도한 날 하나님께 “남편의 믿음이 잘 자라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저는 제가 했던 그 기도를 잊고 있었지만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켜주시고 더 많은 성경공부와 봉사하고 싶어 하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한 작은 기도조차도 기억해주셨다가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교회에 등록하면 누구나 거쳐 가야 하는 새가족부! 매주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면서 날마다 기도해주시고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영혼의 양육자인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서울교회에 믿음뿌리 튼튼히 내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가족부 파이팅!

청년부특강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결혼

권재현(청년부)

“조건을 보는 것은 순수한 결혼이 아니다? 신앙만 좋으면 결혼 한다?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아서 결혼한다?”

지난 주일(24일) 서울교회 601호에서 진행된 결혼특강은 청년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법한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년간의 결혼 상담 및 청년 지도를 바탕으로 둔 장로회신학대학교 홍인종 목사님의 특강은 성경 속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다른 결혼 특강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90분간의 특강에서 홍 목사님은 청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할 수 있는 결혼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을 지적하면서 배우자 선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방법들이 소개됐는데, 첫째, 당사자들은 기도, 성경공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접 구해야 한다. 둘째, 부모, 가족, 친구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셋째,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가족, 신앙, 공동체 중심의 균형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간단하지만 크리스찬 청년들이 쉽사리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어서 매우 유익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먼저 건강한 자아인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만든다는 말씀은 청년의 때에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서울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와와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인류사회에 첫 번째 제도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며 첫 번째 대명으로 문화 명령을 주셨다.

그 뜻에 합하고 창조 섭리에 부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예비된 가정으로 태어나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한다.

여름수련회 초청의글-대학부

##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노문환 장로(대학부 부장)



2007년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7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동안 강원도 철원에 있는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힘차게 달려온 대학부 지체들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록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여름수련회에서는 훌륭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집중적인 기도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여 아쉬워하던 우리들에게 이번 여름수련회는 충분한 기

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대학부 여름수련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며, 방학기간동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 우선하여 수련회에 참석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릴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7월3일(화) 총회특별사면 위원회에 참석한다.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션교회(7.1) 베드로선교회(7.8)

■ 금주의 식사 : 김진환 집사 신자경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금년의 후반기가 새롭게 출발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